



평화위한 종교간 책임기

내 삶의 정점이었던 30대 후반은,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와의 적절한 갈등의 시기였다. 그 때, 가슴 가득 끓어오르는 문화에 대한 향수마저 나를 더욱 힘들게 했다. 그것은 더 할 나위 없는 내 영혼의 타는 목마름이었다. 그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보이지 않는 절대자와의 말 없는 대화와, 밤하늘을 지키는 영롱한

인간과 세상을 보는 눈



박흥선 교무가 읽은 '도덕적...'

별빛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로 다가 온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 그것은 191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타고트의 대표 시집 <기탄찰리>와의 만남이었다. 모두 103편의 서정적 산문시로 이루어진 <기탄찰리>는 나의 타는 목마름을 거두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신개 노래로 바치는 제물'이란 이 책을 만난 후 삶의 신비로움에, 진리의 하얀 속삭임에 눈을 뜨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절대자에게 눈물을 바치지 않을 수 없었다. <기탄찰리>의 넘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님이었다. <기탄찰리>의 사랑은 우리 모두의 사랑이요, <기탄찰리>의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요, 희망이요, 기도의 성터였다. 또 하나의 기적이 내 안에 나타났다. <기탄찰리>에서 보여준 송고한 꿈에서 깨어나 성직자로서 이상과 현실의 조화로운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너무나 필요한 때였다. 그것은 바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와의 만남이었다. 지은이 라인홀드 니버는 미국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로 디트로이트에서 13년간 목사로 활동하였으며 유니온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 교수로 30여 년간 재직했다. 그는 인간 개인은 양심과 도덕

사회가 주는 고통·해악

도덕과 이성이 처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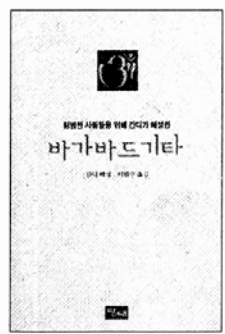
다. 하지만 인간이 속한 집단이라는 사회는 인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욕심이 사회 구조를 통하여 집단적 이기주의로 표출되기에, 사회악은 개인악의 위선적인 표출이라고 생각할 수 없으며, 사회가 개인보다 더 비도덕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므로 때론 개인보다 사회라는 집단이 우리 인간에게 더 많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아픔을 안겨 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21세기에서 도덕과 이성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는 도덕과 이성의 자리 매김을 개인과 사회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책은 독자에게 무한히 개방되어 있다. 성직자가 보는 세계, 정치가, 기업가가 보는 또 다른 세계, 무한히 열려진 상상력의 세계에서의 가르침과 암시는 하나의 세계로 다가서려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빛이 되리라 믿는다. 이 책을 통하여 '인간과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었기에 성직의 길에서 바로 서려는 몸부림이 있었고, 사회 정의를 위하여 출방물에도 발을 담글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다. 너무나 소중한 책이기에 언제나 가까이 하고픈 내 마음의 연서다.

박흥선 교무는 전북 고창에서 출생하여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졸업했다. 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통화부문으로 등단했다. 현재 원불교 제주 성산교당 교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창작동화집 <파랑새와 허수아비>, <소망 도깨비 부부> 등이 있다.

“폭력은 환(幻)에서 온다”

‘바가바드 기타’ 이현주 옮김

마하트마 간디가 죽을 때까지 곁에 두고 읽었다는 책 <바가바드 기타> 관련 이 책의 어떤 점이 간디로 하여금 평생에 걸친 자신의 의지처럼 삼게 했을까?



간디, 하면 우리는 '비폭력'을 떠올린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도 한때 무장봉기를 꿈꾸었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 간디는 "우리가 영국과 싸우려면 싸움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신을 무장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영국에서, 아주 부끄럽게도, 두 명의 영국인으로부터 함께 이 책을 읽는 권유를 받는다. 그리고 그는 빨려 들어가듯이 책을 읽었고, 비폭력의 씨앗을 움틔운다.

에 나오는 700구의 시를 말한다. 본래 <기타>는 브라만교도가 아니었던 바가바타파의 경전이었으나 브라만교에 섞여 들어가면서 종교적 시로 변모했다. 그러다 보니 <기타>에 대한 해석도 관점과 개성에 따라 다양해졌고 많은 주석서들이 나오게 되었다. 우리말로 옮겨진 이 책은 '간디'가 해설한 것이다.

힌두교의 3대 경전 중 하나인 <바가바드 기타>는 약칭하여 <기타>라고도 한다. 우리말로 '지도자(至高者)의 노래'라는 뜻이다. 고대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 가운데 제6권 <비스마라르바> 제23-40장에 나오는 700구의 시를 말한다. 본래 <기타>는 브라만교도가 아니었던 바가바타파의 경전이었으나 브라만교에 섞여 들어가면서 종교적 시로 변모했다. 그러다 보니 <기타>에 대한 해석도 관점과 개성에 따라 다양해졌고 많은 주석서들이 나오게 되었다. 우리말로 옮겨진 이 책은 '간디'가 해설한 것이다.

간디가 해설한 힌두 경전 미망 빠진 인간내면 해부 간디의 '비폭력' 모태

폭력의 원인에 대한 간디의 통찰은 불교 사상에 닿아 있다. 그는 현자(賢者)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폭력은 환(幻)에서 온다"고 말하는데, 이는 "모양 가진 모든 것은 허망한 것"임을 일깨우는 <금강경>의 가르침이나, 현상은 허공 꽃임을 일깨우는 <원각경>의 가르침과도 상통한다.

"폭력은 환에서 온다." 지금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 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에 폭력 퍼지고 싶은 말이다. 그들은 종교, 자존심 그리고 문명이라는 환(幻)에 사로잡혀 자신의 가슴에 칼을 꽂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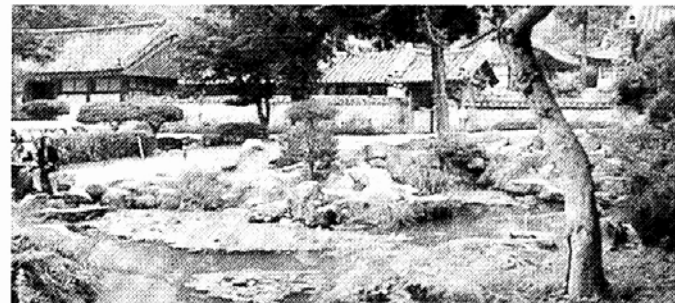
<기타>가 힌두교의 경전이라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 속에는 미망에 사로잡힌 인간 내면의 실상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모크샤(Moksha, 해탈)의 길이 밝혀져 있다. 값 1만6천원.

김종근 기자 gajm@buddhapa.com

‘한국의 전통 조경’

홍광표·이상윤 지음

종교·사상이 있는 우리 조경



◇해남대둔사 무렵지.

‘조경박사’ 홍광표·이상윤·동국대 교수가 <한국의 전통 조경> (동국대 출판부)을 펴냈다. 사찰, 궁궐, 주택, 별서, 서원 조경을 한데 묶어 알기 쉬운 교양서로 펴낸 것이다.

두 지은이는 한국의 전통조경이 과연 어떠한 종교적, 철학적, 사상적 배경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형식에 내재되어 있는 조영자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골몰한

다. "조경이 특정시대와 장소의 문화적 현상을 담고 있는 물리적 표현의 결과이고 문화현상이라는 것은, 그 시대와 장소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종교와 철학 그리고 사상상을 통해서 구체화한 것인 만큼 조경작품에는 당연히 종교, 철학, 사상적 인자가 내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 못한 조경작품은 그 자체가 이미 조경이 추구하는 의미를 상실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경을 살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사찰, 궁궐, 주택, 서원 등이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각각의 대상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선정, 직접 답사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조경 분야에서는 전공자들을 위한 책이 있었으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 많지 않았다. 작품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100여 개의 도면과 500여 장의 사진을 수록한 이 책은, 조경인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한국 조경의 실체로 다가가는 길잡이로 삼을 만하다.

궁궐조경, 사찰조경, 서원조경 등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작품은 조영의 역사와 배경, 입지성, 배치형식 및 공간구성, 경관요소로 세분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지역별 소개하고 있어 답사의 길잡이로도 삼는데 부족함이 없다. 값 1만4천원.

김종근 기자

“만화에 불법과 슬기가 들어있네”

월간 여성불교 '만화로 보는...' '이야기...'



우리는 어렸을 적에 만화로 조상과 역사를 만나고 또 다른 세상을 만났다. 이렇게 만화와 친숙해지면서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월간 여성불교가 내놓은 <만화로 보는 불교설화>와 <이야기 사당방>은 불법과 선조들의 지혜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책이다.

<만화로 보는 불교설화>는 '현장 삼장'이 <반야심경>을 전수 받은 비화(佛話)를 시작으로 '가슴속에 든 불법', '수행자를 박해하는 죄' 등 불교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25편의 불교설화가 실려 있다. 값 3천2백원. 반면 <이야기 사당방>은 해학 속에 숨어 있는 선조들의 지혜를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상인과 보석', '돈과 정' 등 모두 19편을 수록했다. 지은이는 <보물섬> <학생과학>에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강병호 씨. 값 2천4백원. 김종근 기자

일본 선불교 똑바로 이해하기



‘일본선의 역사’ 보광 지음

동국대 선학과 교수 보광 스님이 내놓은 <일본선의 역사> (여래장)는 일본 불교에 대한 물이해의 벽을 슬쩍 허문다.

보광 스님이 일본선에 대해 연구를 시작한 것은 일본선불교사를 강의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일본은 종파불교여서 일본선에 대한 연구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95년 12월부터 3개월간 일본불교대학 객원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의 주제는 '일본선에 대한 연구'. 이 책은 바로 이 연구를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일본선의 개관을 비롯해 중국선의 전래기, 일본선의 형성기, 선사상의 재편기, 명치 이후의 선 등 일본선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값 1만5천원. 김종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top 10 best-selling books including '불교수행요론', '영가천도 49재', etc.

도서 안내: (02)737-0695

여시아문 www.yosiamun.com logo and contact info.

극락세계 가고 싶어라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삶은 수많은 고난과 좌절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삶이 힘들수록 우리 중생들의 길잡이가 되고 귀의 할 수 있는 아미타불의 대구제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극락세계에 가고 싶어라'는 대승불교사상의 꽃인 정토신앙을 세친보살이 '왕생론'이라는 계승으로 쓴 것을 중국의 담관대사께서 정토왕생 길을 밝히기 위해 쓴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문원전속에만 있는 이 왕생론을 정태혁 교수가 현대인들이 읽고, 삶의 원천이 되고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 할 수 있도록 강해 하신 것입니다.

도서출판 동산법문 02-732-1206-8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번지

남산스님의 수족은욕법

- 간편한 수족은욕법으로 과학을 앞서는 치료효과를 경험-



이 책은 남산스님이 15년간 연구, 임상실험한 민간치유요법을 근거로 수족은욕법의 효과를 100% 증대시켜주는 핵심 파스요법 및 테이핑 요법 145가지 및 각종 질병에 알맞는 수족은욕법의 시간과 물온도를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평생동안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이 요법을 시행하면 성인병과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수족은욕법은 운동법이고 치료법이며,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수족은욕법은 15년간 손수 임상실험을 거쳐 얻은 결과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족은욕법을 경험하여 맑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란다

- 남산스님이 말하는 수족은욕법-

하남출판사 02-720-3211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302호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2001년 9·10월호

불교와 문화

www.kbpf.org

이제 인터넷에서도 '불교와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교류하여 발전할 도모하는 장인만큼 '불교와 문화'도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에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합니다

특집: 종교 민영교도소 도입과 불교계의 방안. 2003년 종교 민영교도소 개소에 앞서 불교계의 태도 종교계의 추진현황 및 외국국의 민영 교정시설의 운영사례와 효과를 집중 조명한다.



부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Buddha do? 옛사람이 그리워질 때...

성낙주의 문화재소설 - 경주 분황사 '약사불과 모전석탑' 풍일의 승천(升天)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들 찾아서(마지막 회) · 보시/신행

추억 고쳐와 거사, 불국생 김미희 보살

그동안 연재된 7개 분야 총 26명의 분자들

- 학술 - 김익성, 김영수, 황의은, 박봉식, 계가복교도동 - 장경호, 조인화, 유주연, 여동명, 인문/출판 - 장성문, 이한성, 이희림, 문화/예술 - 고유림, 한영숙, 서창업, 문학 - 김달진, 조지훈, 오상은, 양진익, 사회운동 - 유대치, 김기주, 김상숙, 전진한, 보시/신행 - 백선영, 김부진, 고사화, 김미희

각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02) 719-2606, 팩스: (02) 719-5052 인터넷 홈페이지: www.kbpf.org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